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는 작은 불씨

운동본부 소식

1997년 12월 - 1998년 1월 · 2월 (통권 20호)

미군, 술집여종업원 살해방화

의정부서... 시비 벌이다 구타, 숨지자 침대에 불질러

미군전용업소 여종업원을 때려 숨... 돌아가려다 하씨가 함께 있지만
 지게 한 뒤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을 붙잡는 데
 주검에 불을 지르는 등 흉악한 범행을 허락
 저지른 미군이 경찰에 붙잡혀
 경기 의정부시
 473야전사
 머시 제류
 조물방화
 대에 넘겼다
 경찰 조사
 15일 오후 10시
 6 외국인전용
 서 종업원으로
 을 중구 물자로
 함께 술을 마시
 집 인근에 있는
 함께 잠을 잔 것
 그는 이날 새벽

의정부 술집여종업원
美軍이 살해·방화



미군이 할퀴고 간 자리...

꽃다운 처지는 간데없고, 썰렁한 집에는 주인없는 구두만이 덩그렇게 놓여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 by U.S Troops in Korea

110-470 서울 ·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 744-1211 팩스. 3673-2296 발행인 : 전 우 섭

이달의 미군범죄

미군트럭과 택시 충돌 한국인 3명 사망

1997년 11월 25일 오후 4시 45분쯤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방석리 앞길에서 미군트럭(에릭 존슨 일병, 23세)과 소나타 II 택시(경기55 바1032)가 충돌하였다. 택시 소속회사인 양주상운 관계자에 따르면 박용선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II 택시가 1차선을 진행하던 중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미군트럭이 앞차의 정차로 급정차를 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다. 중앙선을 넘어온 미군트럭은 소나타 택시와 충돌했고, 범퍼로 택시를 인도까지 밀어냈다. 이과정에서 커다란 미군트럭의 범퍼 안으로 들어가 인도까지 밀려난 택시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택시운전사 박용선씨와 승객 백승용씨, 여자승객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의정부 경찰서와 미군범죄수사대는 현장조사를 했으며, 양주상운측은 국가배상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술 취한 미군사병 서울지하철서 행패

1997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정모씨(24세)는 서울지하철 종로 5가 역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스코트 일병 등 주한미군 사병 3명(미 제2사단 소속)에게 항의하다가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었다. 1998년 1월 1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엘리스 스코트 미군 일행을 붙잡아 미8군 헌병대에 넘겼다. 피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미군일행은 1998년 1월 13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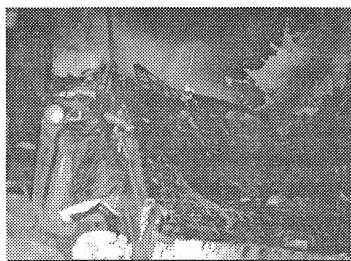


미군병사 4명에 의한 열차승객 조춘식씨 집단폭행

1998년 1월 3일 오후 2시 10분경 문산발 서울행 열차안에서 조춘식씨(남, 41세, 폐지수거판매)는 친구 최동진씨(남, 45세, 폐지수거판매)와 함께 신년을 맞아 문산에 살고 있는 큰형님댁을 찾아뵙고

돌아던 중이었다. 미군병사 4명(미 제2사단 소속 케니스 싱글리터리 상병 외 3명)은 조춘식씨 일행을 보며 욕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조춘식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조춘식씨는 얼굴이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붓고 왼쪽 눈언저리를 14바늘이나 꿰매었다. 또한 온몸은 타박상을 입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사건 당시 실신을 하였으며 엠블런스에 실려 간후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3일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10일후인 1월 13일에 피해자를 만나볼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배상청구 등의 모든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헨릭스 티모시 제롬에 의한 허주연씨 살해 방학



▲ 완전히 불타버린 허주연씨 침대

지난 1월 15일 오후 10시경 허주연(여, 22세, 클럽 여종업원)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제이에스 클럽에서 미군 헨릭스 티모시 제롬(25세, 미군 제473야전시설 지원중대

소속)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16일 0시 20분경 클럽에서 1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취방으로 가 함께 잠을 잤다. 제롬은 3시 30분경 부대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허주연씨가 함께 있자며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허주연씨의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하였고 이어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허주연씨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허주연씨와 침대 등 방안의 살림을 태웠다. 제롬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데 허주연씨가 즐담배를 피우고 자신을 귀찮게 하여 화끈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은 단지 폭행하여 실신만을 시켰을 뿐이라고 번복진술을 하고 있다. 현재 제롬은 평택 미군 피의자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고 2월 첫째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건 그 이후

평택 에바다 농아원 성추행범 윌리엄스 약 에스 항소심 선고 내용

피고 윌리엄스 약 에스는 96년 6월부터 10월까지 평택 에바다 농아원에서 남자 농아원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96년 12월 23일 구속 기소되어 97년 7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 윌리엄스 약 에스 일병은 항소했으며 1997년 12월 2일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2차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97년 12월 1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나 주한미군으로서 열심히 일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형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처해 실형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기순씨 살인 사건 항소심 선고 내용

지난 96년 9월 10일 동두천에서 이기순씨는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에게 목이 반쯤 잘려서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범인 뮤니크 이병은 97년 1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뮤니크 이병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법원은 사건 20일전 소속부대를 배당받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긴장된 심리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유족에게 배상을 해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년형으로 감형하였다. 그러나 뮤니크 이병은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하였다.

상고기일: 미정

우리땅 거쳐 쓰며 군산 공항료 과다요구

1997년 12월 7일 국제민항기의 군산미공군기지 사용협정 5년의 계약기간 만료됐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미공군측과 군산공항 관리공단측은 작년초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미공군측이 제시한 민항기 이착륙료 인상(현재 60달러를 170달러로 ↗)과 시설개선비용 부담비율인상, 민항기 증편, 관제권 우선순위 조정 등에 이견으로 결국 재계약 하지 못한 것이다.

군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결성해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갔다. 결국 시민모임의 투쟁으로 부당한 계약을 맺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협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중필씨 살해 사건

지난 97년 4월 3일 이태원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씨(홍익대 4년 휴학)를 휴대용칼로 찔러 과다 실혈로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디 리는 징역 20년, 페터슨은 단기 1년과 장기 1년 6개월)의 항소심 선고가 98년 1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에디 리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질의 경우라도 최고 20년형까지만 선고될수 있음을 인정하여 1심을 파기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축소운동을 제안하며

김창수(통일맞이 칠천만 거래모임 자료실장)

IMF 구제금융 신청은 경제실태통치에 비교될 만큼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사건이다. 한국경제가 부도난 상태에서 그동안의 국가경영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각계에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 관계의 불합리성 역시 한국경제를 부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연간 3억달러가 넘는 방위비 분담도 이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작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2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의 고위관리는 이런 말을 했다. "98년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3억 9900만 달러는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환율하락과 경제 어려움으로 99년 방위비 분담을 지금 수준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7백원대 수준에서 결정된 주한미군 방위비용의 분담비율은 환율이 1천 5백원 이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주한미군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측의 분담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올 봄부터 본격화될 99년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측은 이와 함께 최근의 경제위기로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98년 이후에는 이미 수립된 무기구매계획 이외에 신규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방위 산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경제위기로 미국산 무기구매 물량이 어느정도로 위축될 지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 왔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무기구매를 재검토하겠다는 것

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미 97년 군무기구매 사업 등 국방예산의 환차손이 2천 5백억원을 훨씬 초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97년도 예산편성 당시 달러 기준환율을 8백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환율 9백 70원을 기준으로 한 환차손은 2천 5백여억원에 이르고, 환율은 이미 1500원대에서 1700원대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환차손은 수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다. 국방부의 외화예산이 정부 외화예산의 73.4%에 달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정부부처중 환차손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예산에서 외화예산은 27억달러에 달하므로 환율상승으로 98년에도 수천억원대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 기회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국 무기구입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도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굴욕적인 IMF시대를 맞아서 주한미군 분담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 유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 주둔지원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이 비용을 분담받는 차원에서라도 기지사용료 징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정부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출 추이 (천만달러)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분담금	15	18	22	26	30	33	36.3	39.9

<1월 21일 외무부 앞에서 열린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분담금 축소 촉구대회>



한미행정협정 제2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신청 받아들여져...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채 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 한미행정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PA) 제2조 제1의 나항-

· **사건의 쟁점:** 미군공여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97년 7월 10일에 동두천 쇠목마을 김석규씨와 이갑순씨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민사37단독 장상군 판사)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을 낸바 있다. 동두천 쇠목마을은 지난 96년 3월 15일 미8군에서 기관총 사격장을 짓겠다는 이유로 탱크 8대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이후 미군공여지임이 확인되었던 곳이다.

· **산정이유:** 사건의 원고대리인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을 사유재산권의 강제적인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조약으

로 본다면 이는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원칙과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요지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지난 10월 23일 제출하였다.

· **위헌제정결정 이유:** 이에 97년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민사지방법원 561호에서 열린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 제11차 재판에서 민사 37단독 장상군 판사는 원고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제기하였다. 신청 이유에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의 해석상 미군이 사용하는 공여지가 사용권이 미국에 이전되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미군사관계를 재조명한다.

-한미행정협정개정 협상을 재촉구하면서-

편집자주) 다음 글은 97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2부 행사에서 이장의 교수(한국외대 법학과)가 강연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97년 10월-11월호 소식지에 이어 『2. 상호성이 결여한 한미방위조약의 문제』부분을 연재합니다.

2. 상호성이 결여한 한미방위조약의 문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되었고, 동조약이 미국에게 “주병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주병권에 따라 미군당국은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대한민국내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의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하는 시설과 구역은 미군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반환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시설과 구역이 사유재산이든 지방자치소유이든 국유이든 상관없이 미군당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병역을 주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다른 상호방위조약과 구별되는 특색의 하나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는 1953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후 그동안 점령지에서 무단 점거하던 군용지는 지주와 미토치기구인 미민정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1953년 7월 정전협정후 그 동안 무단 점거했던 미군기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토지소유자와 미군당국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했었다. 유감스럽게도 임대차는 고사하고 1967년까지 미군의 무상점거사용을 방치해 두다가 1967년 한미행정협정 제2조는 이것을 소급·인정하여 합법화시켜 버렸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또 1950년대 냉전시대기간중에 한미군사관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2조에서 “다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라는 규정이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는나의 여부가 논란이 되곤했다. 동 규정에 의하면, 당사국중 어느 하나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안전과 평화에 위협한 것이라고 인정하되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조치를 선언한다고 함으로써, NATO의 『자동개입조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1991년 남북한의 UN동시가입과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대한 제2조 규정안에 북한도 포함되는지 새로운 해석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병권 인정은 정전협정체제의 존속 및 미군당국의 작전지휘권 소지와 더불어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제도화시켜 주고 있다. 더우기 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그 효력기한을 무기한으로 규정하면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후 1년후에 본조약을 종료시킬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관계가 종료될때까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등한 정립은 잠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미행정협정 제31조는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효력기한을 무기한 아니면 1년전 통고로 종료하는 극단적인 해법보다는 효력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는 중간적 해법을 택함으로써 효력기간 갱신때 그때마다 달라진 한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의 대미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호방위조약이 1954년 체결당시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많이 달라졌음에도 이것이 현 조약에 반영될 길이 없었다. 한예로 미일안보조약 제10조는 10년간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10년마다 재계약을 논의하여 일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원래부터 한미관계는 미국-일본, 미국-독일과 같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니므로, 미국은 더이상 한국에서 점령국이 아니다. 따라서 한미방위조약은 상호성과 평등성의 기초해야한다. 더우기 오늘날 한미관계는 상호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구조의 시정은 모범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전면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 계속 -

운동본부소식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무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MF 통치하의 국민들 주머니는 날아갈듯(?) 가볍기만 합니다. 모두들 보너스는 못받아도 책상만 치우지 말았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경에서 사외단체들의 후원자 감소는 사업의 축소 내지는 상근자들의 정리해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매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운동 본부는 98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후원회원들의 역할과 자원봉사자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결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98년엔 운동본부에서 후원회원,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운동본부 왕도우미 이승주—

처음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라는 이름을 들었을때 단체명치고 꽤 길었기에 웃음이 나왔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단체명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이내 가슴이 아파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세분의 소중한 여성들에게서 '민족자존'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당당한 외침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새날을 소망하는 경미—

후원회원을 비롯한 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MF 시대니 뭐니 하면서 모두가 움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사치 한번 해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항상 묵묵히 열심히 살은 사람들입니다. 98년 한해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 받는 그 날까지 외롭고 힘들겠지만 함께 가야겠습니다. 유진씨, 동심씨, 은주씨! 그대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호주로 날아간 백의의 천사 정연심—

저는 1년동안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체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권리와 독립은 투쟁으로서 얻어집니다. 운동본부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존엄을 위한 한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민족의 자치와 권리를 위한 국제적 투쟁에서 한 민족의 아픔은 모든 민족의 아픔입니다.

—운동본부 사무국 영어 선생님 Gerald Darren Gowlett—

알려드립니다.

운동본부의 단체명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 수정되었다.

1997년 운동본부 10대 소식

1.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1997년 10월28일, 윤금이씨 5주기 추모제를 확대하여 '97주한 미군범죄희생자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재촉하려는 자리로 이어졌다.

2. 미군범죄백서 출간

운동본부 5년 활동을 종합하여 범죄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한 미군범죄 백서를 출간하였다. 미군범죄와 기지환경오염, 공여지 등 미군주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3.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미국측 일방 통보로 중단

95년 11월 시작되어 18개월을 표류하던 한미행정협정 개정 회담은 97년 5월 27일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97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측의 통보로 중단되었다.

4. 동두천시 공여지 일부 반환!

미군에게 제공되었던 동두천 미군 훈련장 6백6만평이 97년 11월 14일 한국에 반환되었다. 이는 미군전용공여지의 14%에 해당하는 땅이다.

5. 군산공항사용료 인상 철회 투쟁

미공군의 활주로 사용료 인상요구에 맞서 군산시민들은 '군산미군기지 민항사용료 인상철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하여 힘있는 투쟁을 벌였다.(98년3월5일은 민항활주로 협상시한이다)

6. 한미행정협정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소송의 원고 대리인 김기중 변호사는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을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원칙과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오지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97년 10월 29일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민사지법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원고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제기하였다.

7. 평택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사건 대응 투쟁

농아원생을 성추행한 윌리엄스 약 에스 일병은 12월 16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 살인 핵무기 - 열화우라늄탄 보유 사실 확인

97년 3월 28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열화우라늄탄이 있으나 폭파,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연천에서 열화우라늄탄이 폭파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 우리땅미군기지전국공동대책위원회 결성

8월 22일 전국 11개 지역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0. 운동본부,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수상

97년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하였다. 변호사회는 금요일집회를 열어 한미양국의 SOFA협상을 이끌어낸 점과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등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1998년 주요 사업계획

1. 사업기초

윤금이씨 사건 이후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투쟁의 열기를 최대한 모아내어 미군범죄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여론화시키는데 열중하였다. 그 성과로 윤금이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년에 1,700-1,800건에 달하던 미군범죄가 97년에는 700건대로 감소하였다. 사건의 유형도 강력범죄 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등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행정협정은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희담도 미국의 일방적 선언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다. 1998년에도 미군범죄 최소화와 피해자 인권구제 활동,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에 역점을 둔다. 동시에 미군이 우리민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록하는 작업에 힘쓴다.

2. 주요 사업계획

미군범죄 및 기지실태조사위원회

- **매주 금요일집회**
용산미군기지 제5정문 앞에서 금요일집회를 지속하고 연 1-2회 캠페인을 겸한다.
- **미군범죄 대응**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지역과 연대하여 더욱 확대한다. 일년에 1-2회 신고센터 홍보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한다. 신고센터를 일상적으로 선전하여 미군범죄 신고율을 높인다.
- **기지백서 준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지를 조사한다. 우선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기지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기지의 사진과 일반적 특성과 도면, 기지촌의 모습을 정리한다.
- **환경오염 조사 - 용산 소음 측정**
용산구 동빙고동 지역의 미군 헬기 소음문제를 조사하여 소송을 준비한다.

기지촌 여성인권위원회

기지촌 여성들과 혼혈아동들의 상담사례와 아동들의 글, 기지촌 문화 등을 모아 기지촌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국제협력위원회

미국 워싱턴에서 오키나와, 필리핀 등 비정부단체(NGO)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다.(1998년 10월)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타국의 행정협정과 한미행정협정을 비교분석한 후 SOFA개정을 촉구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사무국

- '98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10월)
운동본부 1년 사업을 총화하는 자리로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를 준비한다.
- **영상사업**
독립영화 제작 팀인 A-TV와 연대하여 미군범죄, 기지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준비한다.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는 책과 영상물 소개

<책>

주한미군의 윤금이 살해사건 자료집
주한미군의 윤금이 살해사건 자료집은 윤금이씨 2주기 추모제를 맞으면서 발간한 책입니다. 윤금이씨 살해 사건 경과, 사건 일지, 사건 보고서, 재판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공판 기록, 각종 서한과 답변, 투쟁과정에서 발표된 성명서와 유인물, 신문기사 모음, 그리고 추모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발행일: 1994. 10. 28. 10,000원)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행협의 개괄적 설명, 형사 관할권, 민사 청구권, 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노무, 통관, 관세 등의 특혜 그리고 이외 미군 범죄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참고자

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일: 1996.5.22. 144쪽, 5,000원)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으로 본 운동본부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에서 기간의 연구성과를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 통관,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이 수록되었습니다.
(발행일: 1994. 10. 5. 64쪽, 3,000원/ 발행일: 1995. 12. 7. 64쪽, 5000원)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한글, 영문)
기치춘여성과 혼혈아동의 상담사례, 기치춘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할수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와 연대하여 만들은 자료집입니다.

<영상물>

구멍 뚫린 주권
기간에 보도된 미군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재편집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미군범죄를 25분 가량의 비디오 테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일: 97. 11. 25. 25분, 30,000원)

운동본부 소식

6차 실행위원회 열려
97년 12월 11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110호에서 96년 운동본부 6차 실행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97년 운동본부 사업평가가 있었고, 98년도 금요집회 주관 순서와 98년 대표자회의 날짜도 확정되었다.

1998년도 총회 열려
1998년도 총회가 1월 15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회관 708호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97년도 결산과 사업평가, 98년 예산과 사업계획이 논의 되었으며 새로운 임원도 선출되었다. 또한 운동본부 회원단체가 조정되었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회의 열려
기지공대위 회의가 1월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지공대위 98년 사업방향이 논의되었고, 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의 파주 대인지뢰피해자 방문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미행정협정개정과 방위비분담금축소 촉구대회 열려
윌리엄 코언 미국방부 장관 방한 첫날인 1월 21일 오전 11시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한미행정협정개정과 방위비분담금축소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전우섭 목사님, 이장희 교수님, 문애현 수녀님 등 많은 어른들과 청년학생 50여명이 참여했다.

강연
정유진 사무국장은 1월 17일 김포사랑청년회에서 미군범죄와 한미행정협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2월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금요시위
2월 6일 의정부시민연대회의(157차)
13일 사무국
20일 한국기독교청년회의회
27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1997년 11월 12일 - 11월 30일

<후원금>

성일수 10,000 김세진 10,000 박성혜 10,000 박현주 10,000 이유경 20,000 유태희 20,000 이정희 10,000 정양중 10,000 이경미 10,000
 김혜숙 10,000 고재현 5,000 이영화 10,000 백윤옥 20,000 황홍섭 20,000 강은아 10,000 조현경 20,000 김석규 10,000 정순화 10,000
 정지일 10,000 곽순임 10,000 김태연 40,000 이희승 30,000 최경희 20,000 부윤환 30,000 정신영 10,000 김선주 10,000 최기환 10,000
 김영중 20,000 김윤환 10,000 송광성 10,000 조재학 20,000 김비아 10,000 김상일 30,000 이중재 10,000 김이두 20,000 익 명 10,000
 김은정 10,000 김대겸 10,000 새길교회 200,000 평택사랑시민연합 100,000

<희비>

김찬국 100,000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150,000

■ 1997년 12월 1일 - 12월 31일

<후원금>

조관식 20,000 성일수 10,000 김희은 10,000 김민정 10,000 지 민 15,000 김은경 10,000 김세진 10,000 박현주 10,000 장연수 20,000
 신정숙 10,000 유태희 10,000 이경미 10,000 김혜숙 10,000 곽수진 10,000 김경숙 10,000 이정희 10,000 고재현 5,000 이유경 10,000
 임수진 20,000 이중재 10,000 이선욱 10,000 전현정 50,000 한기원 10,000 채승희 5,000 이상동 5,000 백윤옥 20,000 정지일 10,000
 김석규 10,000 곽순임 10,000 이희승 30,000 이영화 10,000 박병택 20,000 이인진 10,000 마하위 10,000 송광성 10,000 김비아 20,000
 최영두 10,000 조재학 20,000 정욱희 10,000 하병집 45,000 라준영 10,000 정연심 20,000 김영석 20,000 강혜원 20,000 정순화 60,000
 부윤환 30,000 정신영 10,000 송용민 5,000 김선주 10,000 이주성 10,000 민경호 20,000 김윤경 10,000 고세욱 10,000 최현주 5,000
 박은숙 10,000 김영희 30,000 김이두 20,000 김낙경 30,000 정현숙 10,000 박종문 20,000 김영숙 20,000 김기세 10,000 안경애 10,000
 유명종 100,000 김유숙 100,000 유영남 600,000 윤팔병 100,000 이호재 100,000 고려해향 10,000
 새길교회 200,000 막달레나의 집 300,000 두레방 600,000 전우섭 600,000 조미리 100,000

<희비>

김경남 20,000 조미리 240,000

■ 1998년 1월 1일 - 1월 31일

<후원금>

조관식 20,000 성일수 10,000 김희은 10,000 김민정 10,000 지 민 15,000 김은경 10,000 김세진 10,000 황철하 20,000 정양중 10,000
 이경미 10,000 김혜숙 10,000 곽수진 10,000 이정희 10,000 이유경 10,000 박준호 10,000 김윤환 10,000 장연수 20,000 전재선 100,000
 임수진 20,000 윤팔병 100,000 김선주 10,000 채승희 5,000 한기원 10,000 강은아 10,000 이상동 5,000 백윤옥 20,000 이인표 20,000
 김기세 10,000 신동봉 50,000 전현정 10,000 정순화 10,000 정지일 10,000 곽순임 10,000 김석규 10,000 이희승 30,000 김은정 20,000
 김대겸 20,000 부윤환 30,000 정신영 10,000 라준영 10,000 정연심 10,000 이인진 10,000 박병택 10,000 송광성 10,000 조재학 20,000
 정욱희 10,000 김이두 20,000 김비아 10,000 고려해향 10,000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30,000 새길교회 200,000

<희비>

김경남 20,000 이장희 100,000 메리놀수녀회 100,000 한소리회 200,000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후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는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계승하여 각계층의 23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미군범죄 및 미군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극복하고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간의 제도를 개선하여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운동본부의 주요 활동은

- 미군범죄 신고센터 운영
- 미군범죄의 공정한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지원
- 미군범죄 근절 대책 마련
- 한미행정협정 개정 운동
- 미군기지 되찾기 및 기지 사용료 징수 운동
-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보호
- 미군기기지 실태조사와 각종 피해조사, 대책마련

후원회에 참여하시려면

- 재정 후원 - 액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혹은 일시불로
- 자원 활동 - 번역, 실태조사, 범죄상담, 소식지 발간, 기타 사무보조 등

후원회원이 되시면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국민은행 205-21-0736-460 전우섭
- 신한은행 216-02-006805 조재학
- 서울은행 14704-1663003 조재학
- 농협 027-02-224544 정유진
- 우체국 010793-0113109 조재학
- 한일은행 012-121012-02-201 조재학
- 제일은행 125-20-221110 조재학
- 조흥은행 325-04-471053 정유진
- 상업은행 104-07-170682 조재학

후원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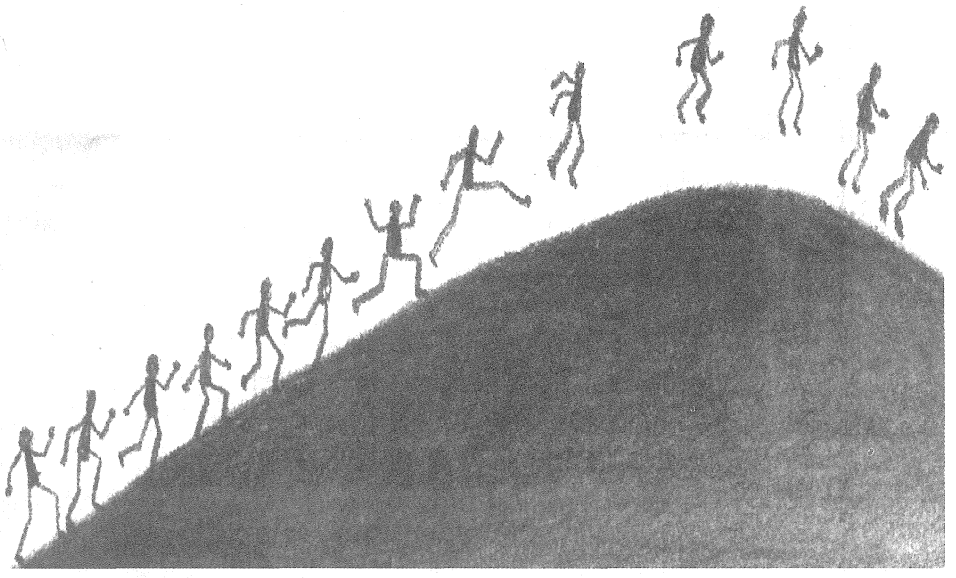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전화 : 744-1211, 팩스 : 3673-2296)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744-1211)

다비타의 집, 두레방, 동두천민주시민회, 메리놀수녀회여성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자주통일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카톨릭여성복지위원회, 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소리회

새
움
터



새움터. 어느덧 한 살이 되었
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
으며 천천히 더 나은 곳을 향
해 올라가자는 다짐을 한 돌
맞은 생일에 되새겨 봅니다.

12
1997

내가 간직한 믿음 / 새움터의 1년 돌아보기 / 새움터 1년을 축하해 주는 이웃들의 말 / 아
이들이 쓴 글 / 연재 내 살아온 이야기 3-살고 싶으면 똥을 퍼내려 / 우리네 아이들 - 손
톱 자국 / 상패동에 다녀와서 / 기지촌에서 쓴 일기 몇 토막 / 세상 둘러보기 -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게 대책인가? /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서 보내 주신 편지

내가 간직한 믿음

오

늘도 나는 병원에 다녀왔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반가움에 애써 웃음을 띠는 그 여성의 토사물을 받아 내면서 울음을 삼켜야 했다. 그 분은 뇌경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새움터가 기지촌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기지촌 여성 운동 8년을 넘어서고 있는 요즘, 내담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병원에 다니는 일이 부족 늘었다. 어떤 때는 한달 내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거나 병원에 음식을 만들어 나르고 간호를 하면서 보내기도 한다. 몇몇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오늘도 누가 아픈가 봐요. 바쁘시네요.”하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다. 우리를 받아 주지 않는 원무과를 설득해 주고 병원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단을 소개해주는 의사도 있었다.

이렇게 병원을 다니거나, 강연을 하거나, 후원 회원들을 만날 때 나는 자주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나 자신에게 가만히 묻게 된다.

내가 기지촌 여성을 만난 건 1990년, 대학교 4학년 때였다. 아주 우연히 한겨레 신문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전업을 위해 빵을 만든다는 기사를 봤다. 만약 그 기사가 단순히 기지촌 여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기사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때 그 곳에 전화를 했고, 빵을 팔고, 기지촌 지역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 기사를 썼던 기사를 지금도 만나면 “내 인생 돌려도-”라고 농담을 해서 함께 웃곤 한다.

2학기가 되어 나는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고 출근하기 전까지 자원 봉사 하는 것으로만 이 일을 여기고 있을 때쯤 나는 한 기지촌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은 나와 같은 나이였다. 동갑이어서 더 그랬는지 자원 봉사를 나갈 때마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피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할 말이 있다면서 함께 자자고 말을 걸어왔다. 나는 말을 걸어 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당장 그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

그 여성은 이런저런 힘든 생활이며, 자신을 배신한 미군의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자려고 누웠을 때 그 여성이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너 이런 데 왜 오니?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이런 데 오지마.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너는 대학도 다니고 곱게 자랐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는데도 나는 마치 대답을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나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너는 우연히, 가난해서 너를 가르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고, 나는 우연히, 여유가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것뿐이야.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고 내가 우연히 받은 것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교육과 혜택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에 오는 거야.”

갑자기 하게 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 길로 나는 취업을 포기하고 기지촌 여성 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여성에게 한 말은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

를 지켜 주었다.

8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신나는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다. 함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갔지만 결국 손쓸 시간도 없이 아까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가 버리신 양귀비엄마(양귀비엄마는 국제 결혼 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친정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미국에 갈 수 없어 이혼하고 아이까지 빼앗긴,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온 분이였다.). 미국 땅에서 미군 남편의 구타를 피해 도망가다가 차로 쫓아온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차혜선언니(차혜선언니는 한국에서도 남편에게 끊임없이 구타당했지만 어려운 기지촌 여성들의 처지를 들으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나서서 도와 주곤 했다.). 국제 결혼 해서 미국에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게 되고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되지 않는 은자언니(은자언니는 한국의 미군 전용 클럽에서 일할 때 계를 조직해서 다른 기지촌 여성들의 빛을 차례로 갚아 10여 명의 여성을 클럽에서 나가게 도와 주었다.).

8년이지만 나는 자살하는 기지촌 여성들, 병으로 쓰러지는 기지촌 여성들, 고통 받는 기지촌 여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고통스럽기만 했다. 좌절하는 나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은 바로 기지촌 여성들이었다.

양귀비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해 그저 영정 앞에서 넋을 잃고 있을 때 기지촌 언니들은 클럽을 돌며 장례비를 모았다. 그날 밤 돈을 모으러 다녔던 네 명의 언니들은 양귀비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모두들 주머니를 털어 줬다며 흐뭇해했다. 사소한 오해로 서로 원수처럼 다투던 언니들도 소식을 듣고 영정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자 더 이상 내게 양귀비엄마의 죽음은 억울하거나 불쌍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날 예수 부활의 모습을 보았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확실히 받아들여지지 않던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나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지촌 여성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이 내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다. 나는 기지촌 여성을 돕는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기지촌 여성 스스로이며, 기지촌 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들도 바로 기지촌 여성이라고 믿는다.

물론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기지촌 여성들은 서로 모여서 힘을 합해 싸워 왔으며 내가 기지촌 여성 운동을 해 온 동안에도 그런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흔들렸지만 그 여성들은 너무나 굳건히 살아왔으며 많은 용기를 보여 주었다. 새움터 개원 1년이 되는 요즘, 나는 이 여성들이 나에게 옳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며 가장 중요한 동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 또 나와 내 동료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 김현선 (새움터 대표)

새움터 1년 돌아보기

새움터가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사실 새움터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은 지난 '95년부터이다. 기지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꾼들이 모여 기지촌 지역에서 여성들을 돕고 삶을 나누는 작은 단체들이 더 여러 군데에 생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이 새움터를 개원하는 뿌리가 되었다. 물론 새움터가 생긴 더 깊은 뿌리는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일 테다. 지난 1년 동안의 새움터, 그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새움터 개원식

96.11.23 : 처음 새움터 자리를 구하려 다닐 때 되도록이면 '아주 가정집다운'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렇게 구한 집이 옛 동두천 두레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기지촌 여성 운동의 '대선배'인 두레방이 남긴 성과와 교훈을 되새기며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 4기 윤금이 씨 추모제

96.10.28 : 기지촌 여성들이 겪는 주한 미군 범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한 윤금이 씨의 죽음. 그 4주기 추모제가 새움터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기지촌 문화제

96.12.13-14 :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사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직접 해보자.' 이런 취지로 열린 제 1회 기지촌 문화제 '도움닫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기지촌 영화제, 재즈 공연, 시화전 등 다양한 행사가 '춘지기' 기획단에 의해 열려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지촌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 '이방의 여인들'과 '캠프 아리랑'은 올 한해 동안 전국의 대학가를 돌며 순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지촌 실태 조사

97.2-4 : 전국에 있는 기지촌을 발로 찾아갔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부산, 대구, 광주, 춘천, 파주 일대, 송탄 등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그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지촌의 규모와 여성들의 실태 등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기지촌, 기지촌 여성, 혼혈 아동 실태와 사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장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별인 조사 작업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며 기지촌 여성들이 처한 문제가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회원 등반 대회

97.3.30 : 새움터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대략 50-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후원자 분들을 생각하면 아주 든든해지지요. 돈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 마음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 이들 모두가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지요. 얼굴도 모르던 몇몇 후원자들이 소요산에서 한데 모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분들이라 많

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요.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보자는 분들이 많네요.

기지촌 활동

97.7-8 : 기지촌 활동은 1989년부터 시작된 활동이에요. 올해에는 새움터에서만 기지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새움터는 아직 작다 보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기활'이 남긴 흔적은 새움터의 든든한 밑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끼나와 회의

97.5.1-5.4 : 새움터는 일본 오끼나와 나하시 여성 센터에서 열린 '군대, 여성,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남한 등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와 학술가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기지촌 지역 실태와 미군 주둔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새움터 김현선 대표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 대표로 발표를 했으며, 국제 통신망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공부방 친구들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던 어린이 잔치와 소풍. 작은 클럽을 빌려서 인형극도 즐기고 인형 선물도 나눠 가졌습니다. 작은 클럽이 많은 아이들로 '미어터질' 뻔 했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모여 이번에는 버스에 몸을 싣고서 처음으로 함께 떠나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꿈이나, 생시냐 하면서 좋아

했습니다. 그 동안 공부방 아이들이 새움터에서 글쓰기 시간에 쓴 글들을 모아 작은 책으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밤 보육 놀이방 꼬맹이들

놀이방에 다니는 꼬맹이들은 모두가 혼혈 이동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새움터 공간은 작지만 터없이 소중한 곳이라는 걸 많이 느끼곤 합니다. 여름에는 함께 물놀이도 갔지요.

허브 사업

기지촌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업 사업을 고민하던 중, 그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될 허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태 님, 광주 허브 관광 농원 등의 도움을 받아 서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화분 판매와 가공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여 여성들이 전업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새움터 1년을 축하해 주는 이웃들의 말



야, 언제냐? 23일?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이번에는 때려 죽여도 가야지. 나 안 가면 목매달아라. 어쩔거나 축하한다. - 의정부 영순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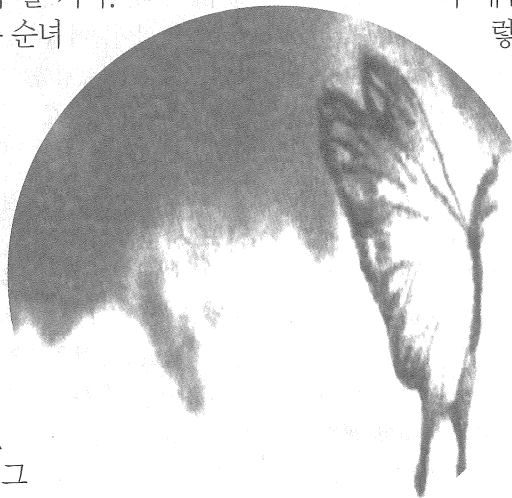
야! 돈 많이 많이 벌라구! 애들도 버글버글거리구, 여자들도 버글버글거리라구. 응? 그래야지. 그래야 좋잖아. 파티는 안하냐? 11월에 한다구? 그래. 나 갈 거야. 형부랑 갈게. - 의정부 순녀 언니

아니, 저기 사실은 느이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그랬어. 새움터에 있는 사람들 지발 좀 훌륭하게 잘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움터도 훌륭하게 잘됐으면 좋겠고. 그거 한 가지야. 그리고 동두천 동네 분들! 우리 새움터 잘 좀 보살펴 주셔! (그리고, 뭐냐 하든..... 갑자기 말할라니까 생각이 나야지. 그거 한 가지여.) - 부평에서 이금란

새움터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앞으로 세계적인 단체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새움터가 기지춘 여성과 아이들에게 희망의 밑알이 되기를. - 부평에서 이영철

난 말이야. 어느 날 문득, 니네가 시집가서 딴 데로 가거나, 새움터가 더 넓은 데로 가고 그러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면 가슴이 철렁하고, 벌써부터 그래. 도망가기만 해 보라. 내가 끝까지 따라 갈 거여. - 동두천 복심 엄마

야, 느그는 어른들도 없이 시작했는데. 진짜 대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지들 바쁘다고 연락도 자주 안하고. 못됐어요, 하여튼. 그래. 니네가 잘돼야지. 거기 애들도 많이 오고 말이야. - 의정부 최언니



자기 생일이라고 축하 인사 강요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새움터에서는 나를 식구로 생각하지 않나 보지? 나보구 축하 인사 하라는 거 보면! 난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늘 동두천이구만 ...축하해. 그러나 손님 취급하지 마-라 말야. - 백재희(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 주는 공간이 되시구요. 새움터 일꾼 여러분 건강하세요. - 이정옥/회사원

아이들이 쓴 글

20년 뒤의 내 모습은

(손** / 초등학교 3학년)

집은 내가 지은 집이고
지붕은 아주 튼튼한 지붕에서 살 거다.
내 친구와 동생과 같이 사는 거다.
여행 가서는 이상한 돌을 찾아서 갈 거다.
수염은 나고, 머리는 자르고, 손에는 털이 있고,
달리기는 빨라질 거다.

내가 만일 거인이라면

(장** / 초등학교 2학년)

내가 만일 거인이라면
지구를 박살내 버리고,
학교를 다 잡아먹고,
사람도 다 잡아먹을 테다.
그리고 사람을 갖고 놀고,
집도 박살낼 거다.
지구가 다 박살이 나면
다시 만들어 나 혼자 편하게 살 거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나랑 같이 신나게 놀 거다.

● 짧은 광고 ●

공부방 아이들의 글 모음 '뿌까뿌까'

그 동안 새움터 공부방 아이들이 쓴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이 생생한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책은 얇은 인쇄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성스레 꾸민 글 모음입니다.

살고 싶으면 똥을 퍼내라

김연자

지난 줄거리

스물한 살에 동두천의 부라보 클럽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김연자 씨는 돈을 벌면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심을 했지만 기지촌 생활은 그를 쉽게 풀어 주지 않았다. 기지촌 여성들에게 벌이는 성병 검진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기가 일쑤였고, 급기야 억울한 여성들은 미군 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두천의 미군 기지가 폐쇄되자 김연자 씨는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먹이 찾아 떠나는 철새처럼 송탄이라는 기지촌으로 자리를 옮긴다.

평택 보건소의 미니 버스는 K-55 미 공군 부대 정문에 세워져 있다. 양공주님들의 자치 단체인 자매회 감찰들은 하얀 비닐에 검은 글씨가 새겨진 완장을 오른쪽 어깨에 부착하고 엔간 홀, 오비 하우스, 스테레오, 메이 플라워, 파이스 팍, 에어 플레인, 바바조, 쓰리스타 등 홀이 늘어진 길을 누비며 다녔다. 성병 진료 카드가 없는 여성들은 강제로 봉고에 태웠다. 그러다 보면 웃지 못할 일들도 터러 생기곤 했다. 때로는 화장실 길게 한 가정 부인이나 처녀들도 단속에 걸려 강제로 봉고 차에 태워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치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거칠게 항의를 한다.

“나는 양색시가 아니야!”

달한 유리창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면 함께 단속에 걸려 차에 태워진 양공주님들은 이렇게 쓰어붙인다.

“야, 이년아, 우리는 양색씨라고 이마에 써서 붙였나?”

“너는 신랑한테 * 안 팔어?”

....

시루에 담겨 있는 콩나물들처럼 뻑뻑이 들어찬 차 문을 닫으면서 씩씩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여수여자중고등학교 시절, 국경일에 3소대 소대장을 할 때 완장을 차고 시가 행진을 할 때마다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의 환호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욕을 실컷 얻어먹어 배가 터질 지경이다. 나는 그 욕먹는 대가로 1,350명 회원 등록에 비회원 1,000명 가량의 자매회 총무 자리에 앉는 출세를 했다.

“너 처녀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린 얼굴로 쳐다보는 15, 6살의 소녀들은 자기를 데리고 온 포주를 한번 쳐다보고, 나를 한번 쳐다본다. 때론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소위 평택 군청 복지과 상담 요원의 대행을 하기 위해 기를 쓰며 어린애들을 상담하곤 했다. 그러나 가짜 주민 등록 초본을 눈감아 그 어린 소녀들이 '양공주님'으로 들어서는 길을 터 주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여성들의 자치회인 자매회에서 처음 기지촌으로 들어온 여성들을 상담하여 성병 검진 카드를 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주들은 자매회 회장에게 뇌물을 바쳤다. 두툼한 봉투의 돈은 포주 손에서 자매회 회장 윤신숙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 날은 포식하는 밤이 되고, 돼지갈비에 소주까지 곁들여 마시고 지극히 만족한 웃음 속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기분 나쁜 밤이 만들어진다. 그 날은 또한 미친 듯이 술을 퍼 마시는 밤이기도 했다.

‘미군 홀 여종업원 모집, 월 이십만 원, 침식 제공’

‘아리랑’, ‘명랑’ 따위 잡지들의 광고와 신문 광고란에 실린 유혹의 문구는, 불빛을 따라 전구에 붙었다가 죽어 나자빠지는 하루살이처럼, 몸을 팔고, 술을 마시도록 한다. 두 달만 지나면 피부 자체가 철색으로 변모하고 영혼과 정신이 죽어 간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아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튀어나가서 사과 장사라도 해야 된다.’

자매회 임원으로서 교양 강좌 때, 학창 시절 웅변부였던 기질을 살려 이 양공주님들을 설득하려는 내 노력은 ‘투레잇’, 이미 늦었다. 그들(포주들)이 이미 넘겨 준 소개비와 가구 값, 사 입은 옷, 먹는 음식 값..... 이 빚더미를 내가 책임을 저 줄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저 이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한단 말인가? 한두 명도 아니고 미성년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눈을 감아 준 시초가 이미 ‘매매춘’의 공범자들인데 말이다.

가족에게도 버림 받은 싸늘한 시체

송탄에 ‘허승병원’이라고 있었다. 이 병원에, 온양 카바레에서 미군 클럽으로 이동한 어느 여인이 자격증도 없는 조수에게 항생제 주사를 맞고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시체를 허승병원 맞은 편 병원에 안치하고 술을 마셔 댔다. 그의 어머니는 전보를 받고 달려왔다. 죽어 버린 딸의 시체 앞에서 구슬프게 찬송가를 부르고, 대머리인 그의 오빠는 술에 취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흐트러진 모습들을 뒤로 하고 창문 밖을 바라본다. 중국놈처럼 생긴 허승병원의 원장은 합의를 하자고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무슨 합의를 해요?”

온양 카바레에서 같은 무렵에 댄서를 하고 함께 송탄에 온 이우자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통곡소리. 곧 땅에 뒹굴면서 머리를 쥐어 뜯는 항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합의금을 받아 쥐고 딸의, 동생의 시체를 내동댕이 친 채 택시를 잡아 타고 출행량을 쳤다. 우리는 구두짝, 콜라 병, 사이다 병을 출행량 치는 택시를 향해 내던져 보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 그러나 울분만 한 움큼 남기고, 택시는 벌써 송탄 파출소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가족들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울분, 통분, 우리는 시외 버스 종점 부근에 6-7명씩 흩어져 32명의 여자가 여관에 투숙했다.

‘허도웅을 수원 검찰청에 고발하자! 합의는 무슨 얼어죽음 합의냐?’

날이 밝자 서로 눈짓을 하며 버스에 흩어져 탔다. 그리고는 수원 터미널에 모두 모였다. 우리는 줄을 서서 질서

있게 검찰청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사법 대서소로 먼저 달려갔다. 진정서를 써서 준비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대통령령의 비상 재엄 때문에 우리는 법원까지 갈 수 없었다. 그 길로 수원 경찰서 대강당에 유치된 우리는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두 분'의 훈계를 듣고 평택 경찰서로 이동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훈계를 받고 풀려났다.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커다란 한 생명의 존엄성이 '몸을 팔았다'는 까닭 하나로 묵인되어 고스란히 땅에 묻혀 버렸다.

“죽은 여인의 아들은 할머니가 잘 길러 주겠지.”

내가 쏟아 낸 자위의 말을 듣고 이우자는 이렇게 응수를 한다.

“개코나 잘 길러? 잘 길러 주기는 뭘 잘 길러 줘? 몇 폰 쥐어 주니까, 시체도 버리고 도망간 인간들. 보지 않아도 뻔하지!”

머리를 쥐어 뜯고 울부짖는 '의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히송병원 문 앞에 깔린다. 여인들의 한을 남기면서 송탄의 하늘은 잿빛으로 스며든다.

한국으로 몰고 온 미국의 인종 차별

'바바조', '쓰리스타'에 흑인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려고 갔던 백인들은 실낱 두들겨 맞고 왔다. 백인 클럽에서 일하는 양공주님들이 만일 흑인들과 춤을 추거나,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희희낙락하면 백인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더군다나 백인을 주로 상대하는 여자가 흑인과 잠자리를 같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흑인의 무리들은 해골이 조각된, 키보다 높은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선두로 하여 '엔간 홀' '오비 하우스', '스테레오', '파이스 픽', 'A플램'으로 무언의 시위를 했다. 백인들은 '꽂지가 빠져라' 하고 부대 정문을 향해 출행량을 친다. 그런 날은 양공주님들이 공치는 날이고, 빛은 또 올라만 간다. 시위도 성이 차지 않으면 부대 사령관에게 흑인들이 '킴 플레인'을 넣는다.

'앨관 홀의 검진 넘버 203이 춤을 같이 춰 주지 않았다.'

'검진 넘버 206이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

.....

클럽에서 일하는 양공주님들은 가슴에 성병 검진 번호를 부착하고 있었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홀 주인에게 경고장이 세 번 날아오면 '오프 리미트' 이 된다. 그렇다고 부대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검열 나온 미군 의무관과 수시로 클럽에 들이닥치는 'S.P' 때문에 '텍'을 가슴에서 떼내 팽개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흑인 색시, 백인 색시로 때가 갈라졌다. 백인 색시들은 '깜둥이들은 징그러워' 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흑인 색시들은 '백인은 노랑

내가 나고, 입 맞추고, 몸을 주물럭거리는데 정신이 없지만, 흑인들은 여자 몸을 아껴 주고 신사야. 나는 백인들은 돈을 다발로 묶어서 같이 쥐도 싫어.'라며 나름대로 '우스운 철학'을 만들어 갔다.

신발 값과 여자 몸값

'슈스 \$10, 롱 타임 \$10, 숏 타임 \$5, 가방 \$5 !!!'

한국의 물가가 비싸고 여자들의 몸값이 비싸다며 미군 부대 측에서 뿌린 유인물의 제목이었다. 여기에는 흑인 미군, 백인 미군이 똑같이 가세하였다. 우리는 한성홀에 모여 시위를 준비했다. 미군을 상대로 장사하는 '번영회'의 상인들까지 합세하여 시위는 곧 미국과 한국의 싸움으로 번져갔다.

'죽여!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

'구두 값하고 사람 값이 같냐? 우리가 신발만도 못하냐?'

상가 아저씨들이 날라다 준 막걸리 통은 이리저리 뒹굴었다. 소주병을 깨서 부대 철조망으로 던지고 시위는 절정에 올랐다. K-55 미 공군 부대의 정문은 굳게 잠기고 세 대의 소방차에서 뿜어 대는 세찬 물줄기는 마스카라의 검정 물과, 땀과, 눈물과, 침에 섞여 얼굴에 튀어졌다. 흩어진 여인들의 머리카락,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사람이라는 분노가 게거품 같은 침과 뒤섞여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요정을 하는 친아버지에게 열여섯 살 때 성 폭행을 당하고 도망나오다가 잡혀가 아버지에게 다시 당하고, 임신까지 해서 중절 수술을 하고 결국 자궁암 3기로 죽어야만 했던 박혜연의 슬픈 사연이 떠올랐다. 아버지에게 버림 받고, 어머니 고향 거문도에 피난 가서 여수로 장사하려고 집을 비운 사이 삼산면 면사무소에서 심부름을 하는 까까머리 먼 친척오빠에게 국민학교 4학년 때 두 번이나 자궁을 짓밟혔던 나의 설움이 '미국 놈들'을 향해 악을 토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분하고, 원통하고, 서러워 소리 지른다.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처럼 번져 갔다. 결국 미군 부대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관광 협회의 클럽 주인들이 나와서 달래자 서서히 가라앉았다. '빛진 죄인들이기에 그들 앞에서는 쪽도 못 쓸' 수밖에. 이쉬울 때 그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방세, 옷값, 화장품 값, 그리고 병원비도 없어, 애도 떼지 못하고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야 하는 현실은 무섭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틀날이면, 어기없이 해는 떠오르고 또 다시 지고, 잿빛 이불을 깔 때면 달은 다시 떠오르고, 네온사인인 각양의 불빛으로 유혹의 미소를 보내며 하루살이 인생들을 환상 속으로 몰아냈다.

'언제 시위가 있었나?'

무감각으로 다시 미국 군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① 공부방 시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특히나 미현이의 공부 시간은 좀 더 있어야 했다.

“우리 약속했지요?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약속 안 했지요! 헤헤헤.”

미현이는 언제나 그런다. 서민옥 선생이 아무리 일러주고, 야단을 쳐도 도무지 시간을 지키는 적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새움터에 오는 것을 제일 즐거운 일로 꼽는 흑인 혼혈아 미현이. 오늘도 몇 번이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서민옥 선생이 첫 시간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 밖에서 ‘기어들어 가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돌아보니 미현이와 예삐가 나란히 서 있다.

“어? 너희들. 선생님이 아직 공부할 시간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또 약속 안 지키기예요? 아직 30분 남았잖아요.”

헌데 이상하다. 다른 때 같으면 ‘아이, 선생님. 들어갈래요.’ 하면서 때를 쓸 아이들이다. 아까도 이미 몇 번이나 때를 쓰다가 돌아간 터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예삐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예삐가 누군가에게 손톱으로 마구 긁힌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위에 연고를 발라 빨개진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했다.

“예삐야!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세상에.”

“미현이가 할켰어요.”

작지만 비장한(?) 고자질이 역력한 예삐의 목소리.

“그게 정말이니?”

나는 미현이와 예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한편으론 섬찝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현이는 주저주저하며 거의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그랬노라고 실토를 한다. 둘에게, 30분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니까 그때

맞추어 다시 오라는 얘기는 이미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게 되어 버렸다.

“세상에. 너희들 이리로 들어오렴. 우리 같이 얘기를 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도 해 주고.”

예삐는 선뜻, 미현이는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었다. 세탁기에서 바로 꺼내 넣어 놓은 빨래감이며, 일거리가 그대로 널부러져 있는 비좁은 사무실 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사무실은 정신이 없었다.

“애들아. 여기 앉아 봐.”

둘 다 눈을 내리깔았다.

“자. 누가 먼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겠니? 무슨 일이 있었지?”

예삐가 먼저 입을 연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있잖아요, 네, 미현이가요, 네, 제 얼굴을 막 할켰어요.”

예삐는 두 손을 들어 얼굴을 할퀴는 시늉까지 내며 말했다.

“니가 먼저 나보고 바보라고 그랬잖아!”

미현이는 예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받아 친다

우리네 아이들 이야기

손톱 자국

“잠깐만, 잠깐만. 그럼 이제는 미현이가 얘기해 보자.”

“네, 있잖아요, 네, 예뻐가요, 네, 저 보구 바보라구 그랬단 말예요. 네, 그리구요, 네, 자기 따라오지 두 말라구 그랬어요.”

“그래서 예뻐를 할퀸 거니? 예뻐는 정말로 미현이한테 바보라구 그랬어?”

예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이 시간이면 사무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창문을 지나친 햇빛이 예뻐의 얼굴에 부딪혔다. 연고를 바른 얼굴이 더 반짝반짝거린다.

2 두 아이가 싸운 까닭을 들어 보니 이랬다.

예뻐는 요새 검지손가락을 제 볼에 대며 예쁜 표정을 자주 만들어 보인다. 그럴 때마다 살가운 소리로 ‘이쁜 짓~’ 하며 애교를 떠다. 어느 날부터인가, 미현이는 예뻐의 ‘예쁜 짓’을 따라서 했다. 예뻐는 자기의 행동을 따라서 애교를 떠는 미현이가 못마땅했던가 보다.

“있잖아요, 네, 이쁘지도 않은 게요, 네, 이쁜 짓을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따라 하지마’, ‘내 맘이다.’ 티격태격하다가 ‘바보’, ‘바보’ 미운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예뻐가 따라오지 마라, 같이 안 놀 거다 하면서 미현이를 따돌렸다.

미현이가 정말로 화가 난 것은 같이 놀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 화가 난 미현이는 결국 오래도록 께지 않아 길게 자라 있는, 까만 때가 빼곡하게 끼어 있는 자신의 손톱을 세워 예뻐의 얼굴을 긁어 버린 것이다.

“미현아. 예뻐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친구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나쁘지. 예뻐도 잘못했어. 친구에게 미운 소리를 하고. 둘 다 많이 혼나야 되겠다.”

나는 미현이의 행동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곧 미현이의 말이 이어져 나왔다.

“근데요, 선생님! 예뻐도 제 얼굴을 막 할퀴었던 말예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미현이의 말에는 말끝마다 ‘네에,네에’ 하는 버릇도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찬찬히 미현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연고만 바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뻐가 만들어 놓았다는 손톱 자국 때문에 두 볼에서 목까지 별경게 달아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뻐는 이게 정말 네가 그런 거냐고 묻는 내게 당연하다는 투로 ‘네’라고 대답했다. 어떤 까닭때문이건 서로 싸운 뒤 똑같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았다. 현대 난 미현이의 얼굴도 그렇게 할 퀸 자욱이 남았는지 미처 몰랐다. 예뻐는 누군가 연고를 발라 주었고, 미현이는 아무도 그 애의 상처에 약을 발라 주지 않았다. 미현이의 상처는 검은 얼굴 빛깔에 감추어져 있었다. 워낙 흥투성이 얼굴이니, 나 역시도 미현이 얼굴에 난 상처를 찾아내지 못했다. 나는 허겁지겁 약 상자를 뒤져 연고를 꺼냈다. 미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3 미현이는 종종 당돌할 정도로 선생님들께 따지고 든다.

한번은 공부방 시간도 다 지나고 저녁을 준비하던 시간에 미현이가 새움터로 올라온 적이 있다. 미현이는 새움터 계단을 올라오면서 ‘선생님, 저 에이미예요.’ 하는 게 아닌가. 언제나 밤 보육 놀이방 동생들처럼 자기도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우리에게 따진 적이 있다.

‘재네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 채 미국에 있을 이름 모를 미군 아버지. 자기를 포주

할머니에게 맡긴 채 어딘가로 홀연히 사라져 버린 어머니. 어느새 동네의 천덕꾸러기 ‘튀기 꼬마’가 되어 버린 아이.

미현이는 늘 따돌림을 당한다. 까만 아이, 지저분한 아이, 냄새 나고, 욕 잘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이 알고 있는 미현이의 모습이다. 그런 미현이가 새움터에 정을 붙이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미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정을 주고 있는 서민옥 선생은 이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다. 한번은 3학년 남자 애들이 모여 앉아 미현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를, 묻지도 않은 내게 얘기해 주었다. 그 중에 한석이라는 남자 아이는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미현이가요,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글쎄, 넌 아니?”

“네. 있잖아요. 맨날 까맣다고 놀리고, 뭐만 없어지지고 그러면 다 미현이가 그랬다고 그러고. 맨날지만 혼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미현이도요,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그래서 더 그러고 다니는 거라구요.”

그 옆에서 한석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 하나도 조금 전까지는 미현이 흉을 실컷 봐 놓서도 ‘맞어요.’라며 맞장구를 친다. 실은 다른 아이들도 알고 있는가 보다. 애써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는가 보다.

4 내 앞에 앉아 있는 상처투성이 두 아이에게 물어 보았다.

“애들아. 지금도 서로가 밍피? 아까 할퀴고, 소리 지르고 싸울 때만큼?”

“아니요.”

“아니요.”

둘 다 선뜻 아니란다. 미현이는 아니라는 말에 이런 토를 단다.

“선생님. 저는요, 네에, 아까도 예뻐가 안 미웠어요. 사실은.”

싸운 까닭. 그건 ‘미움’이 아니었을 테다.

“예뻐는?”

“네에, 저는요, 네에, 아까 미현이가요, 네에, 너무 미웠어요.”

무슨 까닭이었을까. 이 두 아이는 아까부터 울먹거리고 있었다. 미현이에게도 똑같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서 나는 별 말 없이 약을 발라 주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함께 만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얘기해 주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말들을 새겨 들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은 이제 거의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하자, 예뻐는 미현이를 물끄러미 오래도록 쳐다보더니 ‘미안해.’라고 한마디를 남겼다. 그러나 미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처한 눈빛을 내게 보내며 울상이 되어 버린 얼굴을 가로저었다. 미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늘 그랬다. 뜻밖에도 아이답지 않은 반항기 어린 모습이거나, 입을 앙다물고 침묵을 지키거나, 끝을 볼 수 없는 괴기스러운 웃음을 흘리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다. 다만, 자기도 예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걸 ‘끄덕끄덕’ 고개짓으로 대신할 뿐이다.

두 아이는 조막만한 새끼손가락을 서로 엮어 걸었다. 훌쩍훌쩍 울면서도 작은 손바닥을 서로 펼쳐 보이며 도장도 찍고 ‘싸인’도 했다. 얼굴에 난 손톱 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만큼 아이들도 서로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자라나면서 ‘천덕꾸러기 튀기 아이’가 아니라 ‘내 친구 미현이’로 어울리면 좋겠다.

상패동에 다녀와서

-고 이기순 누이 추모제에 다녀와서-

나는 아직도 작년의 그 황담함과 울분과 처절함을 잊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96년 9월 7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누이가 미군의 군화발에 무참히 살해당한 날이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의 머리 속에는 그때의 학생회 및 시민 단체와 시민들의 울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잊어버렸다.

1년이 되어 우리는 지워진 기억들을 다시 추스려 고 이기순 씨 1기 추모제를 조출하게나마 준비했다. 우리는 이기순 누이가 돌아가신 9월 7일부터 13일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영결식이 끝나면서 이기순 누이의 사무친 한이 서린 뼈 가루를 들고 무덤 하나, 비석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패동 공동 묘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인원은 나까지 5명, 작년의 물분을 같이했던 사람들의 수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였다. 하지만 인원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누이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상패동 공동 묘지는 뼈를 뿌리러 왔던 때보다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뼈를 뿌렸던 장소를 어렵사리 찾을 수 있었다. 나에게 갑자기 그 장소를 찾아왔을 때 밀려오는 한번도 찾아오지 못한 부끄러움과 무언지 모를 감정은 나를, 아니 그 곳에 같이했던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영정과 북어 대가리와 소주가 전부인 추모제를 시작했다. 뼈를 뿌렸음직한 곳에 준비를 마치고, 절을 하고, 소주를 뿌려 드리고, 우리가 준비해 갔던 것을 놓아둔 채 발을 옮겨야만 했다.

그 곳을 내려오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기순 누이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화발에 무너진 (우리가 창녀라고, 양색시라고 부르는) 여인들이 그 누구의 방문도 받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 누군가의 미소가 보이는 듯했다.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한가지 다짐을 했다. 미군의 군화발에 무너진 그 대들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고 이기순 누이와 그 곳에 홀로 묻히거나 뿌려진 이들이여! 편히 쉬소서.

조미애 - 멍청한 클럽에서 일하는 엄마는 잠꾸러기

아침에 **를 집에 내려다 주던 중 티나가 불쑥 이런 얘기를 한다.

“엄마는 잠꾸러기야!”

나는 **에게 엄마가 잠꾸러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다.

“엄마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 티나는 이런 얘기로 내 말을 되받는다.

“아니에요. 엄마가 멍청한 클럽에서 일해서, 2시까지 일하니까 그래요. 엄마가요, 식당에서 일하려고 그랬는데요, 차가 없대요. 걸어서는 못 가서, 그래서 일 못했어요. 옛날에는 잠꾸러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잠꾸러기예요.”

나는 선뜻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다.

“그래도 엄마를 잠꾸러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저 이렇게 얘기해 줬을 뿐이다.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서민옥 - 또르륵또르륵 오뚜기 노는 소리

오늘 **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책들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나쁜 행동이라며 혼을 내자 그 아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왜 나만 혼내요? 왜 나만!”하며 울부짖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공부방에서조차 야단을 맞고 보니 서러움이 밀려왔던 모양이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가 조금씩 바뀌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참 뒤에 나가 보니 **이는 새움터 오르는 비좁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힉’ 내러가 버리고 말았다. 또 다시 한참이 지나고 어디선가 오뚜기가 ‘또르륵또르륵’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 보니 **이가 문 앞에 와 서 있다.

***어! 아까 선생님이 혼내서 속상했지?” 그 큰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은 **이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혼냈던 거야. 네가 다른 데서 더 많이 혼나지 않게 선생님이 혼낸 거야. 선생님은 **이 혼내기 싫어.”

**이에게 어제 아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고 물어 보니 또 운다. 애들이 자신을 놀려서 그랬다는 거다. 우리 **이는 그 작은 가슴에 맺인 응어리가 너무도 많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반항기 어린 모습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오히려 다행스러워 보인다.

엄상미 - 올 일이 있으면 울어 보자구

오늘도 잠시 짬을 내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 책 저 책 뒤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른다. 쳐다보니 **어머니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다.

“아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나오시고.”

“요새 통 못 봤잖아. 내가 직접 와야지, 뭐.” **어머니 손에는 굴이며 호도과자가 들려 있었다.

“그나저나 나도 책을 하나 골라야 되겠어. 그 왜 있잖아. 읽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고, 응, 감동스러운 걸로 하나 골라 줘. 나 말이야, 영철이 출판 그 뭐시냐, 응, 출판 기념회 때 사람들을 다 감동하게 만들 거라구. 하나 골라 봐.”

**어머니는 영철오빠 시집 출판 기념회를 우리보다 더 기대하고 계신다. 출판 기념회 때 자신이 직접 쓴 축시를 낭송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시를 쓰고 여행 연습을 하고 난리다.

“어머니. 즐거운 자린데 눈물 바다 만드시려구요?”

“그래야지. 그제 어떻게 나오는 시집인데. 우리 영철이가 삼십 몇 년이야. 그 세월을 참고, 견디고.. 우리 성립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영철이를 키웠는데.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지.”

자신도 흑인 혼혈 딸을 두고 있어 영철오빠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기는 **어머니. 어제 저녁 나 절에는 출판 기념회 때 입을 시를 함께 쓰셨다. 옆에서 돕고 있던 내가 쪽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자 **어머니와 옆에 앉아 있던 **아줌마는 눈자위를 붉히고 말했다.

차은영 - 점쟁이가 알려준 동두천에서의 희망

정언니는 의정부가 고향이라. 어렸을 때 같은 기지촌임에도 동두천을 굉장히 무시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동두천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팠다. 망해서 도망칠 때, 처음에는 죽을 생각으로 거제도에 가서 바다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렇게 6개월을 지냈어.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나, 어렸을 때, 의정부서 살 때 말이야. 군단 앞에 사는 어떤 언니가 양색시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구 집도 몇 채씩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구.”

“스토(작은 규모의 미군 상대 술집)라도 해 볼 생각이었다니까. 내가 딱 300만 원 모아둔 거, 그거 들고 군단 앞에 딱 와 보니까. 기가 막혔지. 클럽이 몇 개 안 남았잖아. 어떤 여자가 돈을 벌려고든 차라리 동두천에 가서 취직하라구. 거기는 경기가 좀 낫다고. 그래 와 보니. 이 꼴이잖어.”

정언니가 달랑 옷 보따리 하나 들고 동두천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이었다고 한다. 그때 보산리 클럽가에서 한 펍투 아줌마를 만났는데, 언니 모습이 이상해 보였는지 왜 여기에 왔냐고 물어보더라. ‘돈 벌려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고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있고, 돈 못 번다고 하면 보따리도 풀지 말고 당장 그 길로 여기를 떠나요.’

정언니에게 말을 건 아줌마는 여기에서 몇 십 년 동안 몇 억을 벌었는데 그 점쟁이가 이야기해 준대로 된 거고 지금은 재산 관리까지 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같이 그 점쟁이를 만나러 갔다.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희망을 갖고 동두천에 눌러앉았다. 처음에 **여관에 머물면서 가계 자리를 알아 보려 다녔는데 300만 원으로 클럽을 하기엔 어렵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돈은 점점 바닥이 나고 말았다. 정언니는 주저리주저리 지난 얘기를 풀어놓는다. 같이 얘기를 하니 속이 시원하다면서도 좀처럼 자주 들리지 않는다. 언젠가 어떤 얘기 끝에 자기는 손길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말끝을 흐렸던 정언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통 소식이 없다. 오늘도 모처럼 맛난 음식을 해 함께 나눠 먹고 싶지만 다른 여관으로 옮겨 버린 정언니에게 전해 줄 길이 없다.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게 대책인가?

얼

마 전부터 뉴스에서는 신길동 일대의 매매춘 지역을 철거하는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또 그 얼마 전에는 천호동 매매춘 지역을 강력히 단속하는 경찰들의 모습도 생생히 보여 준 바 있다. 이러한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사람은 PC 통신에 이런 글을 띄웠다. '잘하는 일이다, 아예 탱크로 밀어 버리지.'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에서 많은 매매춘 여성을 상담하며 더 튼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온 한 현장 단체 실무자의 얘기는 아주 달랐다. '차라리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단속이지 그건 계약이라구요, 더 꼭꼭 숨어 드니 여성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였다. 단속은 또 다른 음성 매매춘 지역을 만들고 있다.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경찰들이 모처럼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잘한다고 박수를 치기엔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서울의 매매춘 지역을 단속하자, 많은 포주들은 여성들을 데리고 파주 일대의 용주골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매춘 여성을 찾는 매춘 남성들' 역시 이들을 찾아 용주골을 드나들었다. 새로운 매매춘 지역의 탄생이었다. 용주골은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배경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은 한때 주한 미군을 위한 위락 지역으로 번성했었다. 최근에는 이곳뿐만 아니라 평택, 성남 등지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매매춘 지역으로 번성하고 있다. 매매춘 문제, 그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이다. 나라마다 매매춘에 대한 법과 정책이 다르다. 우리 나라는 미 군정 시절에 '공창'이 폐지된 이후, 금지 주의 입법 태도를 정했다. 즉, 어떠한 형태의 매매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한 입법으로서 1961년 11월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법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1995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이전까지는 성을 파는 여성들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던 법 조항이 비로소 성을 사는 남성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된 법률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접근이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법 제정 이후 33년 만에 처음 개정된 이 법률은 1996년 1월 6일부터 새로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시행 첫 날, 매춘 업소를 찾은 남성과 포주와 매춘 여성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다(여성신문, 1996년 2월 9일자). 구속된 남성의 항변, '몰랐어요. 남자도 처벌을 받는 지...' 어찌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생각과 같을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제주 경찰서는 '강화된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하여 언론의 주목을 끌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곧 석방하

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듯 법으로도 엄연히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매춘 여성들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기지촌 지역의 매춘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직도 '성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1991년에는 정부가 전국 58개의 사창가와 안마 시술소, 나이트 클럽, 룸 카페 등 유흥 행위 용의 업소 종사자들에게 대한 '카드 관리'를 하기도 했다. 이는 공창을 인정한다는 발상이며 곧 유흥 취업 카드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여론에 의해 경찰청은 이미 작성한 '카드'를 폐기하였지만 기지촌과 같은 특수 지역에서는 아직도 성병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매춘에 대한 바른 대책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마저 만들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실정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정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매매춘 지역을 단속하러 뛰어다니면서 선전을 하고 있으며, 이미 폐쇄되었던 예전의 용주골을 새로운 매매춘 지역으로 성장시켰다. 어디 이 두 지역뿐일까. 전국의 매매춘 지역은 오히려 더 파행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대대적인 단속과 거점 이동이라는 새로운 현상의 반대편에서는 행정 기관이 아예 손을 놓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단속 대상이 된 포주들과 여성들이 이처럼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대로 사는 것.' '건강한 노동'을 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때로는 되돌아보는 여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매매춘 현장에서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노동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여태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명분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매매춘을 근절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정책안을 고민해야 한다. 잘 짜인 법 조항, 보여 주기 위한 단속에만 그칠 일이 아니다.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보여 주기 식으로, 시위를 하듯 단속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럴수록 포주들과 여성들은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사회의 문제는 더 꼬아 갈 것이다.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매매춘에 대한 가부장적인 시각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다부지게 잡고 싶다면 '방지'와 '치유'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

새움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전 꾸준히 새움의 소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한번 두 보탬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우선 메일을 보내 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싸늘해져 가기만 한데도 새움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온정이 넘치는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보니 제가 너무 배울 점이 많음을 다시한 번 깨닫게 됩니다. 새움의 사람들 모두가 자꾸만 추워져 가는 날씨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쓰지요. 늘 죄송해요. 도움이 못 되어 드려서요. 언제나 해맑은 웃음 잃지 않길 바라구요. 안녕!(미안해요. 첫 편지라... 망설임 끝에 썼습니다. 또 보내 드리죠.

— 김선화(천리안 ID0000) / 도움 주는 이

허브, 허브!

산다는 것이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으면, 이렇게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허브 사업 이야기 '땅이 주는 희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잔잔하고도 뜨거운 감동을 느껴 이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이고 참된 희망이란 정녕 이런 것일 겁니다. 나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 예쁜 생활 글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신 여러분들! 참사랑을 실천하시는 고마움에 고개 숙여집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름도 제 각기 예쁜 여러 종의 허브 모종들, 모두 잘 자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 봅니다.

희망의 허브

대지는 차지만 / 콧잔등에 이마위 에 / 송글이 맺힌 땀이 있음에 / 믿음과 희망의 말들을 / 너는 향기로 대신하누나 / 대지는 매정하여 / 오직 힘으로 대해야 하는 것 /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네게 머물면 /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 가만히 품에 안고 있구나 / 희망의 허브 / 너는 믿음과 희망을 지녔다 / 티 없는 아이들의 눈 속에는 벌써 / 네 꽃으로 왕관을 엮는다.

— 동두천 송내동에서 최경철

사람 냄새 나는 곳

새움터는 항상 들쭉거리고 콧 잔 느낌으로 다가온다. 사실 새움터로 가는 빨간 카펫이 깔린 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설레었는데, 꼭 사람 냄새 맡으러 가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가끔은 시간에 쫓겨 아웅다웅거리며 살다가도 내 마음이 쉬고 싶을 땐 제일 먼저 새움터가 생각나. 내게 새움터로 가는 길은 파란 하늘로 이어지는(사실 내가 갈 때마다 날씨는 쾌청했거든.) 덜컹거리는 길이 있어 좋고, 우리 집보다 더 편안한 우리 집에 있는 것

글을 보내 주세요

기초촌 문제, 새움터 활동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글이 쑥스러우시다면 살아 있는 말로 전해 주셔도 되구요. 기다릴게요

편지 보내 주신 분들

같거든. 그 곳에서 때르는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내 얘기가 너무 감상적이고, 넌 여기서 매일매일을 살지 않아 그런 거라고 하면 미안해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역시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새우터와 그곳 식구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만은 늘 갖고 살 거야.(아무튼 날 식구르 키워 주지 않으면 어쩐지?) 반가운 얼굴르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 양** / 도움 주는 이

하얀이가 보낸 편지

짧은 하루간의 기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내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르 돌아온 후에도 그 곳의 기억들이 떠나질 않고, 그 곳이 너무도 그리기만 합니다. 저에게 그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짧은 생각과 철없는 행동으로 폐만 끼치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언니들께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일은 많고, 손은 모자자고..... 멀리서 하얀이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죠? 그럼 나중에, 머지 않은 미래에 또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만 즐입니다.(남은 중이에 놀이방 꼬마 **에게 몇 자 적습니다. 꼭 전해 주세요.)

보고 싶은 **에게.

안녕. 이젠 날씨가 정말르 쌀쌀해졌는데, **는 감기 안 걸리고 잘 있는지. 선생님은 **가 정말르 많이 보고 싶어요. **의 까만 눈동자. 귀여운 얼굴.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기억 속엔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는데, **는 아마 벌써 선생님을 까맣게 잊어버렸겠죠? **가 선생님을 잊는다 해도 선생님은 **가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래요. 그럼 나중에 또 쓸게요.

하얀이 선생님이.

- 이하얀 / 건국대학교

그 놈의 정이란 게

밤이 깊었습니다. 천리안에 가입한 죄르 글을 올립니다. 또 다른 만남이네요. 가끔 궁금합니다. 무엇이 나를 새우터와 인연을 맺게 했을까요. 그냥 스쳐가듯 될 이 곳을 내가 머물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요? 그래도, 나도 모르게 해 준 것 없이 정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무서버요, 그 놈의 정이란 게. 아무튼 고상들 허시고요, 자주자주 뵙도록 허지요. 그러문 또.....

이영훈(천cod0)/후원자

글을 보내 주세요

이런 소식

공부방 소식

97.10.12 동두천에 사는 최경철 후원자가의 도움을 받아 드림랜드로 공부방, 놀이방 아이들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새움터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도 많이 참가했어요. 너무들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공부방에 다니는 고등반 2명이 대입 수능 시험 준비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빌어 주세요.

열린 전화 개설 준비 한창

한국 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가출 소녀의 매춘 예방과 매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에 대한 피해 신고 전화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춘 지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심터들과 매춘 여성들을 직접 연결하여 치유와 진업 노력이 이루어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현선 대표는 이 준비 과정에서 자원 봉사자들 교육(97.10.7-17)을 함께했습니다.

양귀비엄마의 2주기 추모 모임

97.10.13 고 김현순(양귀비엄마) 회원의 2주기 추모 모임이 새움터에서 있었습니다. 미군들과 부대끼며 평생을 기지촌에서 살다가 결국 노년의 쓸쓸함을 혼자서 견뎌 내야 했던 양귀비엄마였습니다.

영화 상영

97.10.2 경희대학교, 97.10.9 광운대학교에서 기지촌 여성 문제 기록 영화 '이방의 여인들' 상영회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함께할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재정 도움

기지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새움터 활동을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후원금은 기지촌 어린이 교육, 여성 상담, 실무자들의 최저 생계비, 새움터 운영을 위해 쓰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많고 적음보다는 함께 뜻을 나누려는 마음이 더 소중하고 반갑습니다.

다만 '달마다 얼마' 식으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후원금을 보내신 뒤에는 꼭 연락해 주세요.

온라인 계좌 : 국민은행 205-21-0823-001 / 우체국 100834-0104156 (예금주 차은영)

물품 도움

텔레비전, 비디오 작동기, 학용품

그 밖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물건이라면,

크고 작음에 얽매이지 않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기 운영 위원회

97.10.26 1997년 제 5차 정기 운영 위원회(장소 : 문화 예술 기획 '개마')가 있었습니다. 올해 남은 사업에 대한 준비와 사업 평가 및 내년 계획을 잘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허브 사업

10월 동안에는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대학교, 순복음신학대학교, 포천 산정호수 '역새 폴 축제', 인사동 '문화의 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등에서 화분 판매를 했습니다. 지난 달부터는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교육, 싱글 우먼 자아 성장 과정

97.10.1-10.2 실무자 및 자활가 3명이 여성 단체 연합에서 주최한 <정보 통신 교육>에 참가하였고, 97.10.3-10.4 실무자 2명이 인천 여성의 전화에서 주최한 '싱글 우먼 자아 성장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주제가 좀 특이하지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미군 범죄 희생자 위령제

97. 10. 28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에서 주최한 '미군 범죄 희생자 위령제'에 참가했습니다. 윤금이 씨를 비롯해서 그 동안 미군들에게 살해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참 모순되게도 이 날 위령제를 올려 드린 모든 고인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의 5년 활동을 종합하고 그 동안 일어났던 미군 범죄 사건을 모두 종합한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 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도 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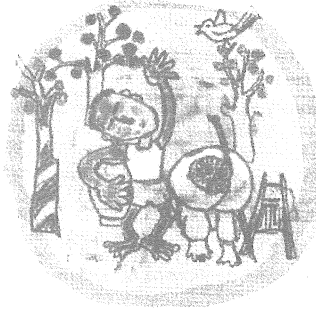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흥은행/ 이성자 외 30,000 양지순 5,000 ● 우체국/ 노유정 5,000 김수찬 20,000 문수경 5,000 태정은 10,000 안창현 10,000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여학생회 50,000 교회여성연합 180,000(김현선 대표 강연 사례비) 김동규 10,000 정유진 운영위원 20,000 정희진 운영위원 20,000 부산중 20,000 흥춘회 운영위원 10,000 김은희 5,000 정신교 20,000 김병수 10,000 ● 국민은행 / 원윤미 10,000 장은아 10,000 김주석 10,000 임성수 5,000 이영훈 30,000 설경옥 20,000 고경란 10,000 우경숙 10,000 건국대학교 불문과 여성학 동우회 70,000 박누리 50,000 차은영 200,000 이승희 10,000 김경성 30,000 조준호 20,000 최지명 10,000 이상원 10,000 이영구 10,000 최희진 10,000 김정일 30,000 김종하 10,000 오현주 20,000 유승완 20,000 유태희 20,000 조유경 5,000 김수찬 20,000 우승희 30,000 이영훈 30,000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89 동기 모임 남이사 50,000 원윤미 10,000 장은아 10,000 김주석 10,000 김동심 정양중 라준영 정순화 김세진 박연홍 30,000 고경란 10,000

그 밖에 도움 주신 분들

● 물품후원 / 오경희 님과 가족, 윤지혜(먹을 거리), (주)천재 교육(학습지) ● 공부방, 놀이방 아동 가을 소풍 차량 지원 및 운전 / 최경철 ● 회의 장소 제공 /문화 예술 기획 '개마' ● 허브 키울 땅 무료 임대 / 김태 ● 허브 사업 지원 / 광주 허브관광농원 ● 꼬박꼬박 자원 활동 / 윤지혜, 강혜원 ● 틈틈이 자원 활동 / 박지윤, 김미경

새움이 돋는 곳



새움은 새싹을 가리키는 우리 말이며 새움터는 '새움이 돋는 곳'이라는 뜻으로 소외된 기지촌에 사랑과 희망이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들의 어려움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새움터는 기지촌에서 가난하고 동떨어진 삶을 이어 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늘 겪는 문제를 서로 도와 풀어 내며 차츰차츰 스스로 삶을 키우는 일에 작지만 단단한 밑돌이 되고 싶습니다.

운·영·하·는·사·람·들

고문

김연자 신혜수 장필화 안일순 문형선 이선희

운영 위원장

윤혜경

운영 위원

정희진 정유진 박진아 홍춘희 정선영 김수연 외 새움터 일꾼들

새움터 대표

김현선

새움터 일꾼

강옥경 차은영 엄상미 조미애 서민옥 김명분 정강실 양미연